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8. 11.(화) 총 2매(본문 2)	
담당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• 과장 오원만, 서기관 이창훈, 주무관 장승원 • ☎ (044)201-4377, 4144	
보도일시		2020년 8월 1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 항공실장, 11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찾아 추진방향 논의

-그간 제2공항 쟁점해소 위해 7차례 연속 토론회…소통 지속 강화
-제주도지사·도의회·주민 면담,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숨골조사 추진

-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8월 11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(성산 일대)를 찾아 숨골*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주도지사, 제주도의회, 지역주민 등을 만나 제주 제2공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용암 지질구조의 일종으로 다량의 물이 땅속으로 신속하게 빠질 수 있는 구조

- 국토부는 숨골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, 지하수 고갈, 지하수 오염, 농경지, 어업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.

- 그동안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쟁점해소를 위해 비상도민 회의와 총 7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가져왔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.

* 비공개토론회 3회(4.23, 5.7, 5.28), 공개토론회 4회(7.2, 7.9, 7.16, 7.24)

-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 등과의 면담에서 제주 제2공항은 안전, 환경, 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민 동의하에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, 제주도 차원에서 합리적·개관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- 특히,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정과 도의회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,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듭 당부하였다.

□ 특히, ‘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’을 통해(8월 4주 용역 착수 예정), 지역주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기회 확대, 주변지역 발전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.

- 이와 함께, 상·하수도,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수용력 제고 방안과 도시재생, 스마트시티, 생활SOC, 노후SOC 사업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에도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“향후 실질적인 주민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설명하면서,

- 숨골조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“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고 신중하게 조사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* 건설기술연구원, 지질자원연구원, 지질·토목·수자원 학회 등 전문가 자문과 열화상, Lid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숨골 전수조사 중(‘20.6~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창훈 서기관, 장승원 주무관(☎ 044-201-414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